

주택 리모델링 '깜깜이 공사'에 안전 '깜깜'

인테리어 쪽으로 가볍게 생각 신고·허가 절차 무시하고 진행 소규모 공사는 무면허 대부분 부실시공·하자 등 분쟁소지 많아 동구 '계림동 사고' 업체 고발키로

전통한옥 등 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을 위한 신고와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무자격 업체가 사업자를 맡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계약 불이행과 부실시공, 하자 등 분쟁소지가 있고 안전 불감증 속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 같은 제2, 제3의 대형 인명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7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4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4월 5일 광주일보 6면)와 관련 동구가 공사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에 건축주를 포함할 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면적 200㎡ 미만이면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자치구에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계림동 주택 공사의 경우 신고없이 무자격 업체가 대수선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통한옥 같은 목조건물의 경우 뼈대(기둥) 및 지붕틀을 그대로 남긴 채 주요 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 바닥 철거 등 개·보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인허가 절차없이 '경미한 수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는 상



지난 4일 오후 주택 개·보수 과정에서 붕괴돼 4명의 인부가 매몰된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무너진 가족에서 소방대원들이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황에서 대수선마저도 신고 없이 '깜깜이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깜깜'도 문제라고 봤다.

대수선은 최소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소규모 주택·상가의 경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자치구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전통한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대수선 범위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허가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 직영이 아닌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및 건설산업 기본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허증을 받는 구조물에 대

한 리모델링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점검을 하게 된다"며 "그러나 리모델링을 일종의 인테리어 개념으로 착각하거나 속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유공간이다 보니 행정의 관리·감독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공사업체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다른 시민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 리모델링 업체의 구조물 안전진단 등의 절차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광주지역 리모델링 전문업체 관계자는 "노후된

소규모 건물의 경우 설계도 자체가 없는 곳이 많고, 설계도가 있어도 해당 건물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 구조를 알 수 없으니 단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은 "무자격업체가 제시하는 공사비가 통상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비해 낮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이 스스로 현장 감독을 실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교육현장 성희롱 피해 신고 늘고 성폭력 줄었다

전국 3년간 405건 접수... 디지털 성폭력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교육현장에 총 405건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신고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성폭력 신고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교육부가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총 60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5건을 뺀 203건은 교육 외 분

야에 들어온 신고다. 교육분야 피해신고의 연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05건, 2019년 135건, 2020년 130건, 2021년 현재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18년에 성희롱 61건, 성희롱 34건, 디지털성폭력 1건, 그 외 8건 등으로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9년에는 성희롱 65건, 성폭력 57건, 디지털 성폭력 5건, 그 외 4건 등

으로 성폭력 신고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성희롱 피해 신고는 급증했다. 2020년에도 성희롱 70건, 성폭력 44건, 디지털 성폭력 4건, 그 외 12건 등으로 성희롱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피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에는 대학 45건, 고등학교 30건, 중학교 17건, 초등학교 13건 등의 순이었다. 2019년에도 대학 52건, 고등학교 38건, 중학교 29건, 초등학교 12건으로 대학과 고등학교의 피해신고가 더 많았다. 이어 2020년에도 대학 77건, 고등학교 29건,

중학교 13건, 초등학교 9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장인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과거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사실을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문제제기해 신고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 간 문제나 교직원 간 문제 등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피해 양상이 더욱 복잡해 피해건수도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시민감리단 활동

전남교육청 건설공사시민감리단이 7일 구례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민감리단은 부실 방지와 재해예방 지도, 공정·품질·시공·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중점 수행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감리단장을 포함해 건축·토목·기계·전기 분야 감리단원 6명이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공사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의 예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전남교육청 시민감리단은 공모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24일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올해는 구례공공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을 포함해 공사비 2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6건을 대상으로 감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생 선수 인권교육 실시

광주시교육청 내달까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학생선수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 강의 중심에서 탈피, 토론·체험 중심으로 채워진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56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운동부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학생선수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역할극으로 꾸며보는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병관 광주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자원을 통해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안전한 학교운동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협약

광주보훈청-광주교육대

광주지방보훈청이 미래세대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보훈인식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7일 광주보훈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교육대학교와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학교에서 보훈문화교육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 양 기관이 함께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에서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사업 운영과 보훈교육 활성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